

# 대학생의 성적 강요 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적 강요와 태도, 경험,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태도 요인으로는 성차별적 태도, 경험 요인으로는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성격 특성으로는 불안과 우울, 충동성, 자존감을 선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426명 중에서 성적 강요경험을 했거나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128명으로 전체의 30.0%였다. 성격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적 강요경험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남자의 경우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강요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외상 증후를 보였다. 성장기 가족 내의 폭력적 경험과 성적 강요 경험의 관련성에서는, 남녀 모두 성적 강요 경험과 성장기 가족 내에서 경험한 폭력 행동이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의 폭력적 행동이 성장기의 폭력에 대한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마지막으로 이후 연구에 시사하는 바와 임상실제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적 강요, 성차별적태도,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미혼의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관계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이성 교제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적인 행동이 관찰되고 있으며 성적인 강요행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Carlson, 1987; Gelles & Straus, 1979; Levy, 1998; 안귀여루, 2001, 2002; 유선영, 2000; 이영숙, 1998; 장희숙 & 조현각, 2001). 이성교제의 성적 강요행동 경험은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한 가지 성적 강요행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배우자 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Kelly & Loesch, 1983, 김재엽, 1998). 즉 이성교제 당시에 성적 강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적 강요에 대한 이해는 가정 폭력의 예방 차원에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나, 국내에서는 성적 강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 교제 기간, 헌신 수준 등이 다루어졌으며, 이외에도 낭만주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개인적 특성, 상황적인 요인 등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강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Riggs와 O'Leary(1989)에 따르면 성적 강요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경험한 폭력,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성격 특성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황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관계내의 갈등 등이 포함된다. 성적 강요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들은 경험, 태도, 성격 특성 등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이며 변화와 통제가 가능한 요인들이라면, 상황적 요인에 속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관계 내의 갈등 등은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적 공격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폭력의 발달이나 전달, 표현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Gelles와 Straus(1979)는 아동기 가정 폭력의 노출과 성인기 대인 관계 폭력 패턴, 특히 배우자 학대와 강한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이외에도 성적 강요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엄청난 양의 연구 문헌들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폭력적인 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Gelles, 1974, 1979; Steinmetz, 1977; Strauss, Gelles, & Steinmetz, 1980; Baron & Richardson, 1994). Straus와 Gelles(1979)의 연구는 일반적인 공격성에 관한 것이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성과 관련된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Malamuth와 그의 동료들(Malamuth, Linz, Heavy, Barns, & Acker, 1995; Malamuth, Sockloski, Koss & Tanaka, 1991)은 성적 공격과 공격자의 원 가족 내에서의 공격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Sanday(1981)가 관찰한 대로 대인 관계의 폭력이 일상화된 가정에서는 성적 표현의 한 형태로 폭력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Waker(1983)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들의 원 가족내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과 통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urphy(1988)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이성교제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이 목격되거나 경험되는 가정 출신이라고 하였다. 즉 원 가족에서의 가정 폭력 피해 경험은 이성교제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선영(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정 폭력 피해는 데이트 폭력의 허용도에 영향을 끼치고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부모간의 폭력도 목격한 집단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적 공격성에 있어서 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주의 이론가들이는데 Brownmiller(1975)는 성적 강요와 공격이 성차별적 사회, 즉 경직된 성역할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고 사회 통제와 예속의 수단으로 성 폭력의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Sanday(1981)같은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 공격은 범 인류적인 특성이 아니며, 생물학으로 절대적인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적 강요나 공격성은 대신에 문화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격행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나 태도들 중의 하나가 성 차별적 태도인데, 이는 개인의 성에 기초한 부정적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Burt의 연구(1980)에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여성에 대한 특정태도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성적 공격과 성적인 강요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하며, 편파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태도가 많이 줄어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남, 녀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에도 성 고정

관념이나 편견은 분명히 존재한다(Spence & Helmreich, 1978; Spence & Hahn, 1997; Flynn, 1990). 그러나 성차별주의적 태도가 공격성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적대적인 성 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증가된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즉 명백한 성 차별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폭력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성적 공격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성격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가 어떤 특정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나 신념이라면 성격은 보다 광범위한 경험과 행동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 특성들은 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보다 덜 특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성적 공격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폭력적 행동과 관련해서 연구된 성격 요인으로 몇 가지가 밝혀진 바 있다. 먼저 우울과 불안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성격 특성으로 많은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적 공격은 충동성이나 적대감과도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lamuth 등, 1991).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중요한 성격요인이며(Leary, Schreindorfer & Haupt, 1995; Mecca, Smesker, & Vasconcellos, 1989), 낮은 자존감은 공격 행동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Leary 등, 1995; Mecca, Smesker, & Vasconcellos, 1989). 안귀여루(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 교제 시에 폭력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충동성, 우울감, 불안감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성교제 폭력이나 성적 강요 행동의 실태나 원인,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영숙, 1998, 김예정, 1993). 국내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21%에서 (김용미, 1996)에서 52%(김정란, 19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영(200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성교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폭력을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성교제 폭력은 성장기의 가정 폭력의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폭력 피해는 이성교제폭력의 허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교제폭력의 허용도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귀여루(2001)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심리적 적응과 이성교제 폭력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숙과 조현각(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폭력을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구별하였을 때, 전체의 86.7%의 사람들이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21.4%의 사람들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 17.7%의 사람들이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의 위험 요인은 비행경력, 우울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교제 기간, 교제기간이었으며 성적 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성별, 범죄 경력, 사회적 지지도, 통제력,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 강요와 관련이 있다고 선행 연구들에서 가정되는 선별된 변인들 중 개인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남 녀 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개인적 요인들로 선정된 것은,

태도, 경험, 성격특성으로 태도 요인으로는 성차별적 태도(Spence & Hahn, 1997), 경험 요인으로는 폭력 행동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된 성장기 가정 폭력 노출 경험(Baron & Richardson, 1994), 성격 특성으로는 불안과 우울, 충동성, 자존감(Malamuth, Sockloskie, Koss, & Tanaka, 1991)을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의 성적 강요 경험이 일어나는 빈도와 어떤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성격적인 변인들로서 우울감, 충동성, 불안감, 자존감등을 탐색하여 보고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 후에 발생하는 외상후 증후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선행변인으로써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행동의 경험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보았다.

## 방법 및 절차

###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울 소재 1개 대학과 경기 소재 1개 대학, 그리고 중부권 소재 1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로 심리학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46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나 반응이 타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34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사람은 전체 426명이었고 이중 남자는 162(38.0%)명이었고, 여자는 264명(62.0%)이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0.2세였다.

### 절차

본 연구는 사전에 잘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이 가진 성적 강요 경험이나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 대학생의 정서적 적응과 데이트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만 설명하였고 성적 강요에 대한 질문과 성장기 가정 폭력경험에 대한 질문은 설문지의 맨 뒤쪽에 배치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학기 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각자 설문지를 완성한 후 함께 나누어준 봉투에 봉한 상태로 반납하도록 조치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실시자가 잘 설명하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 연구 도구

#### 인구 통계학적 특성

피험자의 연령, 학과, 학년, 가족의 월수입, 성별, 등이 조사되었고 부모의 직업, 교육 정도, 함께 사는 가족이 조사되었다.

#### 성적 공격성과 강요

Koss와 Oros(1982)가 성적 경험에 대한 설문지를 성적 공격과 강요에 대한 측정치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유용하고 널리 쓰이는 스케일이기는 하지만 몇몇 단어들어 어색하고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Malamuth, 1986). 이 설문지를 Forbes와 Adams-Curtis(2001)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작하여 사용했는데 모호성을 줄이고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신

체적 힘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아이템은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에게는 성적 강요를 당한 경험을 물어보았고, 남학생들에게는 성적 강요를 한 경험을 물어보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수 일어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성적 강요 경험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정하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 우울

SDS(Self -Rating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 증상들을 자기가 평가하는 척도이다(박 중훈,1994). 이 척도는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표준화 한 것으로 의기소침, 주의력 및 집중력, 사고력의 저하, 운동 정신 기능의 장애, 식욕 및 성욕 감소, 울음, 심하게는 허무망상 및 주관적 자살 의도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 아니다. 2: 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역 코딩을 하지 않고 총점을 계산한다. 이 척도들 간의 상호 상관은  $r = .78$ 이다(김 정희, 1987).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 병탁, 이 중범, 이 중훈, 정성덕, 1990; 이 중범, 이 중훈; 1985)

### 충동성

반 사회적 행동과 높은 상관이라고 알려진 충동성의 정도를 재기 위해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 Barratt,1959)의 11관을 이 현수(1992)가 번안한 것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된다. 이 검사는 세 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계획 충동(NP), 운동 충동성(M) 및 인지 충동성(C)이 있다. 각 하위척도는 12문항, 10문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불안

피해자의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0)의 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개의 문항중 특성 불안을 재는 20개의 문항만을 실시하였다.

### 자아 존중감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 은여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노 은여(1997)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 외상 증후 체크 리스트 -TSC (Traumatic Symptom Checklist)

외상적인 경험 후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측정하는 도구인 외상 증후 체크리스트 TSC(Traumatic Symptom Checklist)-40을 사용하였다. TSC-40은 아동기나 성인기의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성인용 검사이다. TSC-40은 이전의 TSC-33의 개정판이다(Briere & Runtz, 1989). TSC-40은 40개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불안, 우울, 해리, 성적 학대 외

상 지수(Sexual Abuse Trauma Index-SATI), 성적인 문제들, 수면 장애이다. 각각의 증상들은 지난 두 달간 발생한 빈도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만들어져 있다. 0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이고 3점은 '자주 그렇다'이다.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고 채점하는데 5-10분이 소요된다. TSC-40를 사용한 연구들은 이 도구가 상당히 신뢰로운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 척도의 알파는 보통 .66에서 .77에 이르고 전체 척도의 알파는 .89에서 .91정도이다. TSC-40는 여러 가지 외상적 경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예언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다(Dutton, 1995). 심리 치료자들의 대리적 외상 경험을 예측하기도 하였다(Chestman, 1995).

###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79)는 광범위하게 영향력있고 유용한 갈등 해결에 대한 측정치이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다른 CTS에 답변하였다. 즉 성장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반응은 5점 척도로 채점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동에 관한 경험들을 물어보았다. 부모 간에 발생한 폭력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따로 CTS의 갈등 해결 방법 중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CTS갈등해결 책략중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문항은 물건 던지기, 손으로 때리기, 물건으로 치기, 발로 차기, 떠밀기, 흠뻑 패주기, 목조르기, 흉기 사용하기 등이었다.

## 결과

###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는 전체 426명이었고 이중 남자는 162(38.0%)명이었고, 여자는 264명(62.0%)이었다. 피해자 아버지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24명(5.6%)였고, 중졸이 24명(5.6%)였으며 고졸이 164명(38.5%)였고 전문대졸은 18명(4.2%)였고 대졸은 140명(32.9%)였다. 대학원 졸은 56명(13.1%)였다.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34명(8.0%)였고, 중졸이 54명(12.7%)였으며 고졸이 202명(47.4%)였고 전문대졸은 14명(3.3%)였고 대졸은 110명(25.8%)였다. 대학원 졸은 12명(2.8%)였다.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 생활 수준이 '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12%였고 중하라고 답변한 사람이 21.3%였다. 나머지 중, 중상, 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0.2세였다. 동거가족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친부와 함께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322명으로 75.6%였고 친모와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356명으로 83.6%였다. 새아버지와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으로 2.3%였고 새어머니와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2명으로 .05%였다. 혼자서만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12명으로 2.8%였고 가족이 아닌 사람과 동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2명으로 5.1%에 이르렀다. 자신의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321명으로 75.4%에 해당했다.

### 성적 강요 경험

전체 응답자 426명 중에서 성적 강요 경험을 했거나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128명으로 전체의 30.0%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162명중 성적 강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49명으로 30.25%였으며, 여성의 경우 전체 264명중 성적 강요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79명으로 29.92%였다(표1참조).

표 1. 성적 강요 경험 유무

성적 강요 경험	성 별		Total
	남	여	
유(%)	49(11.5%)	79(18.5%)	128(30.0%)
무(%)	113(26.5%)	185(43.4%)	298(70.0%)
전 체(%)	162(38.0%)	264(62.0%)	426(100%)

여기에 더해서 성적 강요 경험의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빈도 분석을 통해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2참조). 즉 성적 강요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강요 경험을 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언어적으로 키스할 것을 강요하거나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가장 많이 보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키스 이외의 성적인 행동을 강요당하거나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경험상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행동은 물리적 강요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혹은 모면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경험을 보고 하였다. 남자는 3%이내의 사람이 그런 적이 있다고 보고한데 비해 여성은 경우 키스와 이외의 성적인 행동은 6%가 넘었고 성교에 대한 물리적 강요 경험의 경우 두 집단이 비슷하게 보고 하였다. 성적 강요 경험의 빈도에서 물리적 강요로 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 성교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강간에 해당되는 행동인데 남학생은 2명이 그렇다고 대답해서 1.2%를 차지했고 여학생의 경우도 2명이 그렇다고 대답해서 0.8%를 차지했다.

표2. 성별에 따른 특정 성적 강요 행동의 빈도 차

		남(n=49)	여(n=79)	X <sup>2</sup>	p
언어적으로 강요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키스	34(21.0%)	46(17.4%)	.84	.361
	이외의 성적인 행동	21(13.0%)	34(12.9%)	.00	.980
	성교	9(5.6%)	12(4.5%)	.22	.640
위험을 하거나 받았으나 실패(모면)한 적이 있다.	키스	15(9.3%)	37(14.0%)	2.12	.145
	이외의 성적인 행동	11(6.8%)	37(14.0%)	5.24	.022
	성교	7(4.3%)	18(6.8%)	1.13	.287
위험으로 인해 한 적이 있다.	키스	4(2.5%)	0(0.0%)	6.58	.010
	이외의 성적인 행동	2(1.2%)	0(0.0%)	3.28	.070
	성교	2(1.2%)	0(0.0%)	3.28	.070
물리적인 강요를 당했으나 모면하였다. (시도했으나 실패하 였다.)	키스	4(2.5%)	18(6.8%)	3.88	.049
	이외의 성적인 행동	4(2.5%)	17(6.4%)	3.38	.066
	성교	5(3.1%)	8(3.0%)	.00	.974
물리적인 강요로 한 적이 있다.	키스	7(4.3%)	6(2.3%)	1.42	.233
	이외의 성적인 행동	3(1.9%)	8(3.0%)	.55	.457
	성교	2(1.2%)	2(0.8%)	.25	.620

### 성적 강요 경험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적 강요경험이 성격적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3. 참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강요 경험이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충동성과 우울감이었다. 그러나 강요를 당한 집단과 강요를 한 집단의 성격적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녀별로 나누어서 성격특성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남자의 경우 성적 강요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충동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여자의 경우 성적 강요를 당한 적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감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특성불안이나 자존감은 두 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적 강요를 한 적이 있는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격적인 면에서 충동적이고 성적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성적 강요 경험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

		비경험 집단	경험 집단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 편차)		
충동성	남	21.12(5.52)	25.27(8.64)	3.671	.000
	여	22.13(4.65)	23.01(5.33)	1.352	.178
	전체	21.74(5.01)	23.88(6.84)	3.585	.000
우울감	남	15.02(4.66)	14.92(4.69)	.124	.901
	여	15.29(4.26)	18.18(6.97)	4.116	.000
	전체	15.19(4.41)	16.93(6.38)	3.245	.001
특성불안	남	28.34(8.84)	27.59(8.10)	.505	.615
	여	28.32(8.90)	29.37(8.89)	.877	.381
	전체	28.33(8.86)	28.69(8.61)	.390	.697
자아존중	남	19.79(5.04)	19.18(4.59)	.719	.473
	여	20.21(4.74)	19.76(4.46)	.712	.477
	전체	20.05(4.85)	19.54(4.51)	1.011	.312

#### 태도와 성적 강요 경험과의 관계

성적 강요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표4참조), 전체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녀를 분리해서 검증해 본 결과 남학생들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즉 남학생의 경우 성적 강요 경험과 성차별적 태도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성적 강요 경험과 연구변인들간의 상관

	남	여	전체
Trauma Symptom Checklist	.025	.155*	.095*
<b>성장기 가족내 폭력행동 경험</b>			
성장기 폭력 경험 총점	.224**	.131*	.162**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	.116	.085	.091
어머니로부터 받은 폭력 행동	.072	.089	.084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동 경험	.298**	.124*	.184**
<b>성차별적 태도</b>	.206**	.061	.101*
<b>성격 특성</b>			
충동성	.301**	.098	.189**
우울감	.193**	.278**	.181**
특성불안	.047	.078	.032
자아존중감	.002	.009	.007

\* p< .05, \*\*p< .01, \*\*\*< .001

#### 성적 강요 경험과 TSC와의 관계

성적 강요경험과 외상 증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표4참조), 남자들의 경우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 성장기의 폭력 경험 변인들과 성적 강요 경험

성장기 가족 내의 폭력적 경험과 성적 강요 경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표4참조), 남녀 모두 성적 강요 경험과 성장기 가족 내에서 경험한 폭력 행동이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장기 가족 내에서 경험한 폭력행동의

총점보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적 강요 경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부모가 자신에게 직접 가한 폭력행동보다 부부간의 폭력행동을 자녀가 관찰하는 것이 성인기의 성적 강요 경험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적 강요 경험이 일어나는 빈도와 어떤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성적 강요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 426명 중에서 성적 강요경험을 했거나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128명으로 전체의 30.0%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체 162명중 성적 강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49명으로 30.25%였으며, 여성의 경우 전체 264명중 성적 강요 경험을 당한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79명으로 29.92%였다

한편 성적 강요경험이 있었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성격적 특성은 충동성과 우울감이었다. 남자의 경우 성적 강요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충동성이 더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차별적 태도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성적 강요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강요 경험과 외상 증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가족 내의 폭력적 경험과 성적 강요 경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남녀 모두 성적 강요 경험과 성장기 가족 내에서 경험한 폭력 행동이 유의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장기 가족 내에서 경험한 폭력행동의 총점보다,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성적 강요 경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의 폭력적 행동이 성장기의 폭력에 대한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안 귀여루, 2002)를 지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의 경험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폭력뿐 아니라 성적 강요 경험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Makepeace(1981)의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성교제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이 이성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할 경우에 이를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폭력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형성에 가정 내 폭력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정 내의 폭력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때리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폭력을 데이트 관계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의 외국 연구와는 달리 여성들이 보고한 성적 강요 경험의 비율과 남성이 보고한 성적 강요 경험의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외국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이 성적 강요를 당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에 비해 남성들이 성적 강요를 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경우가 많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인 훨씬 더 많이 성행위시의 무력 사용에 대해 보고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Koss, 1989). Forbes와 Adams-Curtis(2001)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여성이 성적 강요 경험을 당했다고 보고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었다. 그

런데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보고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집단이고 연령대가 어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강요를 경험한 여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성차별적 태도가 성적 강요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성차별적 태도에 대한 측정치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pence & Hahn, 1997).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의 감소가 성차별적 행동의 실제적 감소를 동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사실 Benikrtis와 Feagin(1995)은 여러 면에서 성차별적 태도는 줄어들지 않으며, 다만 덜 명백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적 태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성격에 대한 측정치들이 성적 강요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가 성격 변인이 성적 공격이나 강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나 성적 강요와 관련된 성격 요인에 대한 보다 신중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성적 공격에 가족변인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성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적 강요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회나 가족의 힘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식별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성격이나 태도 변인이 그러한 힘에 반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이후의 연구에서 더 알아보아야 할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 연구 결과가 이성 교제 폭력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 시사해 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적 강요 경험이 성장기 가정 폭력 경험, 특히 배우자간의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가정 폭력이 대를 이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개입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성교제 폭력 행동이 성적 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시사해 주는 것으로, 현재 성차별적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성 차별적 태도나 관행이 사회에 많이 남아 있고 이런 태도는 이성 교제 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한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성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이성 교제 폭력방지에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격 특성과 관련해서 남학생의 경우 충동성이 특히 폭력 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혼 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이나 충동성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가정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충동성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피험자가 대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 집단이라는 특성이 성차별적 태도나 가정 폭력 경험, 등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에 대한 반응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이 피험자들의 회고적인 보고여서 이런 자료들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강요와 관련된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력있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거나, 한

변인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참고 문헌

- 김예정(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1996).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 14(1) 187-197.
- 김재엽(1998). 가정 폭력의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 김정란(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 적응.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4호 679-695.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 복지 학**, 제 9호.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 폭력 피해와 이성교제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권 4호
- 이현수(1992). 충동성 검사 서울:한국 가이드스
- 장희숙,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 학**, 제 8호, 177-202
- Arias, I., Sanmios, M., & O'Leary, K. D.,(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 Baron, R. A., & Richardson, D. R.(1994). *Human aggression*(2nd ed.). New yok: plenum.
- Benikritis, N.V., & Feagin, J. R.(1995). *Modern sexism*(2nd ed). Enge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riere, J., & Runtz, M. (1989).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TSC-33): Early data on a new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151-163.
- Briere, J. (1996). Psychometric review of the Trauma Symptom Checklist-40, in B.H. Stamm (Ed.). *Measurement of stress, trauma, and adaptation*. Lutherville, MD: Sidran Press.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 Burt, M. A.(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gy*, 38, 217-230.
- Carlson, B.(1987). Dating violence :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8(1), 1987.
- Chestman, K.R. (1995). Secondary exposure to trauma and self reported distress among therapists. In B.H. Stamm (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lf-care issues for clinicians, researchers, and educators*. 29-36. Lutherville, Maryland: Sidran Press.
- Costin, F., & Schwarz. N.(1987). Beliefs about and women's social roles: A four-nation

-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46-56
- De River, J. P.(1950). *The sexual criminal: A psychoanalytic stud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Dutton, D.G. (1995). Trauma symptoms and PTSD-like profiles in perpetrators of intimate viol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 299-316.
- Flynn, C. P.(1990). Sex roles and women's response to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 Forbes, G.B. & Adams-Curtis, L. E.(2001). Experiences with sexual coercion in college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6, No.9, 865-889.
- Gelles, R. J. (1974). *The violent home*. Beverly Hills, CA.: Sage.
- Gelles, T. J.(1979). *Family violence*. Beverly Hill, CA: Sage.
-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1)
- Kelly, E. M. & Loesch, E. M.(1983). Abused wives, *American Mental Health Counseling Association Journal*, 5, 132-140.
- Koss, M.P.(1989). Hidden rap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 M. A. Porog-Good & J. E. Sanday, P. G.(1981).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 5-27.
- Stets(1989)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155-168. New York: Prager.
- Leary, M. R., Schreindorfer, L. S., & Haupt, A. L.(1995). The role of low self-esteem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Why is low self-esteem dysfunctiona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297-314.
- Levy, B.(1998).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Seal press.
- Longsway, K. A., Fitzgerald, L. F.(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akepeace, J. M.(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 Makepeace, J. M.(199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s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53-369.
- Malamuth, N. M., So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70-681.
- Mecca, A. M., Smelser, N. J., & Vasconcellos, J.(1989).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urphy, J.E.(1988) Dating abuse and forced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Sage

Publishers:Newbury, CA.

- Riggs, D. S. & O'leary, K. 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and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Praeger Pub.
- Silvern, L., Karyl, J., Waelde, L., Hodges, W. F., Starek, J. , Heidt, E. & Min, K.(199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Partner Abuse: Relationship to Depression, Trauma Symptom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0, N0.2, 177-202.
- Spence, J. T., & Hahn, E. D. (1997). The Attitude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ly*, 2(1), 17-34.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einmetz, S.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 New York: Prager.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Garden City, NJ: Anchor Press.
- Waker, L.(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K C I

## Experience With Sexual Coercion in College Males and Females

Ahn, Gwi-Yeo-Roo  
Kangnam University

The Contribution of aggression in family of origin, sexist attitude, personality factors, TSC to the experience of sexual coercion were studied in a homogeneous sample of you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426 college studen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aggress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experience of sexual coercion. Sexual coercion was related to depression, impulsivity. Among men, sexual coercion was associated with impulsivity, and Among women, sexual coercion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Sexist attitude was related to sexual coercion. But its effect is dependent on participant's sex. Men who have sexist attitude had experienced more sexual coercion. But this is not true for women.

The discussion addresse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for clinical practice.

Key word : sexual coercion ,sexist attitude, family aggression